

## “땅이 튼튼해야 좋은 먹거리가 나옵니다.”

### #여행사 운영 접고 '빈자 아줌마'로

수십 년 동안 태국·베트남 등지에 지사를 두고 여행사를 운영했던 화려한 사업가에서 '빈자 아줌마'로 변신하여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는 서분례씨. 안성의 서일농원 대표인 서분례씨는 빈자 아줌마, 빈자 박사라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서일농원은 하루 5~6백 명이 다녀갈 정도로 우리 전통 먹거리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식객>의 촬영지였기에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서 대표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삼만 병이 넘는다는 농장을 몇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꽃대만 남은 수십 개의 연꽃 향아리를 따라서 걷다 보면 서일농원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장독대와 마주친다. 농원에 놓여진 장단지가 3000 개가량 된다고 하니 장단지 뚜껑을 열고 닫는 일 만 해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여행사를 하면서 추석이나 설 그런 명절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양로원을 찾아가곤 했어요. 어느 해 설을 앞두고 밴드까지 동원해서 수락산의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한 노인이 우리 직원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동료 노인들이 슬퍼하기 보다는 '죽을려면 내일 죽지, 왜 오늘 죽어서 놀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꾸짖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쉼새처럼 일 년에 몇 번 찾아가는 것으로 낮이나 내려고 하는 저를 반성했습니다."

### #황무지도 가꾸면 문전옥답

그 후 지속적으로 두어 군데의 양로원을 지원하고 방문했지만 이것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로원을 지어서 직접 모셔야겠다는 간절한 원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의 서일농장 부지를 마련하였다. 모든 것이 손조롭게 진행되다 싶었지만 IMF를 만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서대표는 농원 한쪽을 가리켰다. "이쪽은 양로원을 세우려고 마련해 둔 땅입니다. 그리고 농장 운영은 바로 양로원을 꾸러갈 살림인 셈이지요."

24년간 양로원 생일잔치를 열어준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로부터 효행상을 받은 만큼 양로원에 쏟는 서 대표의 정성은 대단하다.

서일농장은 처음엔 황무지와 다름없었다. 둔덕은 깎아 내리고 파진 곳은 객토를 부어 메우고 지심 좋은 땅으로 갈고 다듬기를 거듭하여 6년이 지나자, 겨우 농원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첫 농사를 지어서 콩 5가마를 수확했다. 이것을 시장에 내다팔려고 했는데 값이 너무 헐했기에 5가마를 몽땅 삶아서 된장을 만들었다. 그 된장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대표는 여행사를 정리하고 빈자의 길로 들어섰다.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살기도 했지만, 그때는 좀 더 크고 좋은 것을 찾지만 했을 뿐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연에 묻혀 밭짓모자 쓰고 일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발견하기

서 대표는 제대로 된 전통된장을 만들고 싶었다. 고서(古書)를 뒤져가면서 된장을 연구했다. 또 장맛은 뚝배기 맛이라고 전국방방곡곡에서 100년 된 토종향아리를 구해서 된장을 담았다. 향아리에서 2년 동안 숙



성시킨 뒤에야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농원에서는 된장과 간장 말고도 고추장·청국장·매실식초 등 각종 밑반찬류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서대표는 1999년 전통장 제조로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0년에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농업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그리고 2002년 미국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청국장, 장아찌 등의 규격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연구소와 농원기술센터와도 협력해서 장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 반대한다고 홍콩이나 미국 가서 데모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의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경쟁력 있게 가꾸고 만들어가야 해요. 농촌이 살려면 땅이 튼튼해야 하고, 땅이 튼튼해야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농산물만이 수입농산물을 배척할 수 있어요. 동남아에서 쌀 한 가마에 3만원 받는다면 우리 쌀은 한 가마에 30만원 받도록 차별화를 해야 농촌이 살 수 있어요."

### #제대로 된 식품을 파는 집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내다 판다면 그것 또한 IT산업 못지않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서 대표의 생각이다.

"여기 큰 수입은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식품을 파는 집'이라는 신뢰를 얻었어요. 신뢰를 얻기까지는 15년이란 세월이 걸렸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가꾼다는 생각,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가꾸고 만들어왔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팔장도는 제 삶의 지침서입니다."

서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산의 국립 암센터에서 암환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절망감으로 환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들을 향해 "당신들의 병을 고치려면 자신의 마음자리부터 잘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자리가 50% 먹거리가 30% 병원의 약 20%로 치유할 수 있다"고 희망의 말을 전하는가 하면 2년 동안 45명의 암환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 김치와 생청국장, 백련잎 차를 먹은 45명의 환자 중 3분의 2 이상이 건강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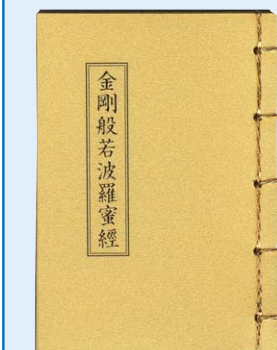
### #나누고 욕심 버리는 것이 '기도'

서 대표는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품을 지녔기로, 아니 오지랖 넓기로 이미 소문 나왔다. 태국에서 여행사를 할 때 우연히 캄보디아 왕사(王師)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캄보디아 자비 실천회>를 만들어 6년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 캄보디아의 스님과 주민들을 치료해 주는 봉사부터 시작해 시골의 학교를 증축하거나 학용품을 보내 주는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질 문턱을 드나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열 개라면 그중 세 개만 버려도 마음 자리가 비워지네요. 법당에서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화내는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가천도**  
**장의량장가천도**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락이 저명하여 포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완인가 125,000원  
예술품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사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열돌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결과,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신안출원

신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욕부름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열의선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